

0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의 매개 진드기는 주로 어디에 있나요?

참진드기는 주로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존재하다가 사람이나 동물과 같은 부착 대상이 수풀 속을 지나가면 숙주(사람, 야생쥐, 고라니, 멧돼지 등)에 붙어 흡혈합니다. 멀리 떨어진 곳을 날아가 달라붙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진드기가 사는 곳에 사람들이 들어가게 됨으로써 접촉하게 됩니다.

02 진드기에 물렸습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 무조건 감염되나요?

진드기에 물린다는 것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걸린다는 것을 동일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전국 진드기 채집 조사 결과에 따르면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진드기는 0.5%의 최소 양성률을 보여, 일부 진드기가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03 진드기에 물린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증상은 없지만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감염되었을지 검사해도 될까요?

진드기에 물렸다고 모두 감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검사를 하여도 감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진드기에 물린 것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진드기 제거법에 따라 진드기를 제거하고, 해당 부위를 소독합니다. 이후 14일 동안 발열, 구토, 설사 등 임상증상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임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04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드기의 활동이 왕성한 봄부터 가을까지 주의해야 하며, 야산지역의 발목높이 초지에서 참진드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다른 감염병의 예방에도 유효합니다. 풀숲이나 덩굴 등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장소에 들어갈 경우에는 긴 소매, 긴 바지, 목이 긴 양말을 착용하여 양말 안에 바지단을 넣고, 발을 완전히 덮는 신발을 착용하여 옷 안으로 진드기가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야외 활동 후에는 샤워를 하며,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0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에 걸린 진드기인지 어떻게 아나요?

육안으로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인지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내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작은소피참진드기의 양성률은 약 0.5% 정도로 낮지만, 해당 진드기가 SFTS에 감염되었을 수 있으므로 진드기에 물린 경우에는 최대 14일까지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진드기의 SFTS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알고 싶은 경우 해당 거주 지역 보건소에 방문하여 민원으로 의뢰하면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수행합니다.